

在日韓人の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 關西지역 거주 한국인을 중심으로 -

Everyday Information Need and Seeking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이 제 환(Jae-whaon Lee)**

장 덕 현(Duk-Hyun Chang)***

이 연 옥(Yeon-Ok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2. 2 일상적 고민과 정보요구 |
| 1. 1 연구목적 | 3. 재일한인의 일상적 정보추구 |
| 1. 2 연구방법 | 3. 1 고민의 해결을 위한 정보원 |
| 2. 재일한인의 일상적 정보요구 | 3. 2 일상적 정보매체의 이용 |
| 2. 1 일상적 고민의 유형 | 4.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일본에 영주하는 한인(在日韓人)의 일상을 '정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재일한인의 정보행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재일한인사회와 같은 소수민족사회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고 정보복지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관련 기관들과 다양한 계층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1)재일한인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고민의 유형과 대처 방식, (2)그러한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정보소스의 유형과 특성, (3)일상의 영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이용하는 정보매체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4)그러한 일상 정보의 탐색과 수집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각종 장애와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shed light on the everyday lives of Korean-residents in Japan, especially in terms of their information behavior. Employing survey method and in-depth interviews interchangeably, it attempts to illustrate some features in their information need and seeking pattern, and to scrutinize major reasons of their passive behavior in information seeking. Specifically discussed are (1) their types of everyday concerns and ways to deal with such concerns; (2)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s-solving behavior; (1)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eferred information sources; and, barriers to and limitation of their everyday information seeking and information use.

키워드: 정보요구, 정보추구행태, 정보행태, 소수민족사회, 재일한인, 재일교포

Information Nee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formation Behavior, Ethnic Minority, Korean Residents in Japan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과제로 수행되었음(KRF 2003-005-A00005)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dchang@pusan.ac.kr)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idisfeel@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4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9월 15일

1. 서론

1. 1 연구목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在日韓人)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낳은 '특수한' 형태의 교포집단이다. 이들은 식민지시대에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탄압과 홀대를 감내해야 했고, 2차 대전이후 근자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의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외국인 정책의 표적이 되어 갖은 차별과 수모를 견디어야 했다. 그러나 그토록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재일한인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60~70년대에 재일한인의 모국에 대한 재정적 투자와 지원이 남북한을 막론하고 경제와 사회발전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음은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재일한인이 모국에 대해 보여준 관심과 열정만큼 모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보여왔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우리가 재일한인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삶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였는지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사회가 생산해온 각종 연구 결과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해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관련 연구자료의 규모가 영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료의 내용 또한 빈약하기 그지없다. 재일한인 혹은 재일한인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학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여론의 주목을 받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슈(참정권문제, 취업차별문제, 외국인등록문제, 민족교육문제

등)를 중심으로 일반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수준의 시사 자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반성에서부터 출발한다. 모국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으로부터는 정작 아무런 관심과 위로조차 받지 못했던 60여만 재일한인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직시하고 통찰해야 한다는 자각과 책임감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재일한인이 일본에 영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고뇌와 번민'이 무엇이며, 그러한 고뇌와 번민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나아가, 그러한 고뇌와 번민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특히, 모국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그러나 재일한인이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관점'으로부터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우리가 선택한 접근 방법은 '정보적 관점'이었다. '정보'를 연구의 스펙트럼으로 삼아 재일한인의 삶 속으로 구석구석 파고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의 논거는 명료하였다. 정보가 키워드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사회에서 정보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정보의 영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재일한인의 정보행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보면 재일한

인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어려움의 실체는 물론이고, 그러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파악, 나아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까지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본 연구팀의 이러한 가정이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커뮤니케이션 학자 Dervin은 “정보는 결국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의미를 지니는 주관적 산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녀에 의하면, 특정 개인의 정보에 대한 요구는 정보 자체의 객관적인 특성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처해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 주관적으로 생성된다.¹⁾ 따라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환경이 열악한 경우 정보요구는 생성 단계부터 제한을 받게 되고, 정보추구 및 이용행태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행태의 소극성과 수동성은 주류사회보다는 주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며, 궁극적으로 주변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변사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행태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 혹은 소수민족 사회를 대상으로 도서관과 같은

정보인프라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열악한 정보환경으로 인해 빈곤층이나 소수민족의 정보행태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변화하고, 그러한 소극성과 수동성이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왔다. 이처럼 근자에 들어서는 소수민족사회의 정보빈곤 혹은 결핍 문제를 그들의 삶의 질과 연계하여 조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류사회와 주변사회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만성적 고리를 끊어보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재일한인의 삶의 실체를 그들의 정보행태를 통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²⁾ 단, 재일한인의 정보행태 전반에 관해 우리가 수행해온 연구결과를 모두 수록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재일한인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³⁾ 구체적으로, (1) 재일한인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고민의 유형과 대처 방식, (2) 그러한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대상의 유형과 특성, (3) 일상의 영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1) 이러한 정보요구의 주관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정보를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Dervin, 1976, 1992; Dervin & Nilan, 1986).

2) 이 연구의 초점은 재일한인의 ‘일상적 삶’에 주어져 있으며,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情報의 範圍 또한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제한하였다. 다시 말해, 각종 학술정보나 연구개발정보와 같은 専門 情報은 이 연구의 조사와 분석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하고자 하였다.

들이 이용하는 매체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4) 그러한 일상 정보의 탐색과 수집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각종 장애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2 연구방법

1. 2. 1 연구의 대상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재일교포, 재일동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코리안, 재일조선·한국인, 체류조선인 등 다양한 용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며, 각 용어에 따라 적용 범위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해방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및 그 후손들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가 재일동포 혹은 재일교포라면, 해방 후에 일본에 유학 가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체류 조선인'으로 불리 운다. 또한 재일동포와 결혼한 본국인이나 일본사람과 결혼한 한국인이 일본에 정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그룹과 앞서의 '체류 조선인'을 합하여 New comer라고 호칭하면서 이미 영주하고 있는 한인(Old comer)들과 구별한다.⁴⁾

또한, 국적에 따라 조총련계 한인은 '재일조선인'으로 민단계 한인은 '재일한국인'으로 사용해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분단 조국의 이념적 대립 골레에서 벗어나 북한도 남한도 아닌 제3의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젊은 3세들이 중심이 되어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재일코리안'의 호칭사용은 1980년대 후반부터 널리 확산되었으며 정치적으로나 역사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의 호칭은 역사적, 시대적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자.

“글쎄요, 재일한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선생님께서 하시는 연구의 대상은 매우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본에 거주하는 Korean은 결코 동질의 소수민족 집단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재일한인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북쪽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용어 자체가 반감을 줄 거예요. 재일한인이 재일한국인하고는 다른 의미라고 하셨나요? 그러나 여기서 韓人이라는 말은 韓國人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조총련계 사람들은 당연히 朝鮮人이라는 말을 선호하지요. 韓民族이라는 말은 남북 모두 즐겨 쓰지 않느냐고요? 그것부터 오해예요. 그들은 朝鮮民族이라는 말을 선호하거

3)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와 정보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재일한인사회가 당면해 있는 정보빈곤의 실태와 그러한 정보빈곤 현상을 초래하는 제반 요인을 파악해 내는데 있다. 특히, 정보빈곤 현상과 정보행태의 소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론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재일한인사회와 같은 소수민족사회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는데 있다. 이 연구는 2년과제(2003년 10월 1일~2006년 9월 31일)로 기획되었으며, 2004년 8월 현재 1차년도 연구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다.

4) 송기찬, 『민족교육과 재일동포 젊은 세대의 아이덴티티』,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대학원, 1999. 한일민족문제학회 엮음, 『재일 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2003.

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녜요. 일본인들도 한국인이라는 말보다 조선인이라는 말을 아직 즐겨 쓰는 분위기 인데...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Korean이라고 하자고 주장해요. 국적이 어디이든, 귀화를 했든 하지 않았든, 모두를 통 털어 Korean이라고 하자고 하지요. 문제는 국적이나 귀화여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선생님은 재일한인의 개념을 오래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반세기 전에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사람들로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초기 이주자들은 지금 얼마 남아 있지 않아요. 2세, 3세, 4세 중에서도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70%는 넘을 거예요. 그들 중에 아직 남한이나 북한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돼요. 그들보다는 오히려 80년대 이후 새로 이주해 온 소위 New Comer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예요. 벌써 한 20만이 넘을 텐데요 ...”⁵⁾

이렇듯 일본 현지의 ‘미묘한’ 실정에 어두웠던 탓에 ‘연구의 대상’을 칭하는 용어의 사용에서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재일한인’이라는 호칭은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이 연구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특별영주’의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한인들과 일본 국적으로 전환하였지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계 한인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입각할 때, 2004년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의 수는 약 6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 1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0% 내외이며, 절대 다수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2-4세로 구성되어 있다.⁶⁾

1. 2. 2 데이터의 수집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수집되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현지조사는 2004년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오사카(大阪)와 교토(京都) 그리고 나라(奈良)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

5)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One Korea 운동을 주도하면서 재일한인사회의 통합을 위해 애쓰고 있는 40대 후반의 재일 ‘교포’ 3세(S씨)의 이야기이다.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앞서 우리는 오사카의 이쿠노쿠에 위치한 Korea Town의 터줏대감으로 알려져 있는 그를 찾아 갔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자 그는 ‘재일한인’이라는 용어의 애매함(?)부터 따지고 들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내 더듬거리면서도 서투른 한국말로 이야기하기를 고집하던 그의 예리한 지적 앞에 우리는 몹시 부끄러웠다. 以後 S씨의 지적을 거울삼아 우리는 가능한 다양한 부류의 재일한인을 골고루 면담하고자 하였으며, 면담과정에서 그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민이 그들이 처해있는 입장과 신분의 차이만큼이나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재일본대한민국 민단자료 중 〈성별분포도〉(<http://www.mindan.org/kr/shokai07.htm> 2004년 3월). 구체적으로, 이들 한인 2~4세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란 사람들로서 한인 1세대와는 달리 한국이나 조선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한인 2세까지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하나 3~4세로 갈수록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 세대는 생활양식이나 의식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한인 1세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이후 급격히 ‘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젊은 한인세대는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또 다른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즉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조국이 “한국”내지는 “조선”이라는 의식이 희박하며, 그렇다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지만 일본을 조국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들은 이처럼 “다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로 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설문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 오사카 지역에서 한인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영사관, 코리아타운, 교회, 학교 등)를 방문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219명의 다양한 계층의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두 번째로, 오사카 지역 민단본부의 도움을 얻어 關西 지역 42개 민단지부에 각각 20~30부의 설문지(총 1,000여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199부를 회수하였다. 이처럼 모두 418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이들의 응답내용에 기초하여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⁷⁾

한편, 같은 기간동안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 대한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는데, 오사카 지역 한인가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국적,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여부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45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구조화한 면담지를 활용하여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집단면담의 방식을 병행하였다.

2. 재일한인의 일상적 정보요구

2. 1 일상적 고민의 유형

“어디서 살든지 사람이기에 겪게 되는 고민거리는 대동소이할 거예요. 남의 나라에 와서 더부살이 하자

니 서러움을 덩으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우리도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타국인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마 더 심할 걸!),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가는 대로 생겨나는 고민이야 그게 그것 아니겠어요? ... 어려서는 공부 걱정이나 친구 혹은 애정관계에 대한 걱정, 조금 나이가 들면 진학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경제적 안정에 대한 걱정, 사회적응에 대한 걱정, 그러다 결혼해서 애들이 생기면 애들 교육이나 건강 그리고 장래에 대한 걱정, 늙어 가면서는 당연히 건강과 노후 복지 혹은 여가의 활용에 대한 걱정 등등... 뭐 이런 게 일상에서 우리가 늘 마주치는 걱정이자 고민거리가 아니겠어요?

한인 2세로 IT 관련 회사를 창립하여 경제적 성공을 이룬 60대 후반의 P씨의 이야기이다. 그의 말대로 일본에 거주하는 ‘보통’ 한인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고민의 유형은 일견 우리와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418명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즉, 건강과 안전, 취업과 사업과 같은 삶의 기초 생활적 욕구와 관련된 고민이 정체성이나 사회참여와 정신가치적 욕구에서 비롯되는 고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을 연령이나 직업과 같은 개인적 변수에 따라 분석해 보아도 앞서 P씨가 했던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20~30대 청년층에서는 취업과 결혼에 대한 고민이 큰데 비해, 30~40대의 중년층에서는

7) 이처럼 설문조사의 시행 방법에 있어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지만, 수집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두 집단을 전체로 묶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표 1〉 재일한인이 마주치는 고민의 유형

구분	첫 번째 고민		두 번째 고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업사업	82	19.6	31	7.4
육아교육	46	11.0	21	5.0
연애결혼	23	5.5	13	3.1
건강안전	134	32.1	86	20.6
노후복지	42	10.0	9	18.9
출세승진	5	1.2	6	1.4
여가생활	11	2.6	25	6.0
대인관계	21	5.0	63	15.1
사회참여	17	4.1	31	7.4
정체성정립	11	2.6	18	4.3
자아실현	16	3.8	11	2.6
계	408	97.6	384	91.9

아이들의 교육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50~60대 장노년층의 관심은 건강과 노후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쏠려 있었다. 특히, 정체성이나 사회참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일부 응답자들도 대부분이 한인사회의 각종 기관이나 단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 판명되어, 일본에 거주하는 ‘보통’ 한인의 ‘일상적’ 고민은 삶의 기초적인, 특히 물질적인 안정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보편성이나 유사성과는 달리, 소수민족집단의 구성원이기에 이들이 겪는 고민의 폭과 갈등의 골은 보다 넓고 깊었다. 여기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난 주요 고민의 구체적인 모습과 내면적 갈등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1. 1 취업

다양한 일상적 고민 가운데 심층면담 과정

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말은 취업과 관련된 ‘차별’이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정부의 재일한인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일본에 귀화하여 완전히 동화되든지, 아니면 차별을 감수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동화 정책으로 인해 국적을 바꾸어 일본에 귀화하지 않은 한인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재일한인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귀화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인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면담에 응한 직장인들 중에서 대기업이나 공무원 혹은 전문직 종사자 중에는 귀화자가 많았고,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본명(한국이름)을 당당히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고백하였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 구조는 중앙과 지역자치 단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하게 퍼져 있다. 일

본기업의 약 12% 정도만이 재일한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일본 주류사회로의 진출이 봉쇄됨에 따라, 한인 젊은이들은 주로 같은 한인이 경영주로 있는 비즈니스에 종사하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면담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차별당한 경험을 울분과 함께 토로하였는데, 본명 대신에 통명을 사용하도록 요구받음으로써 실력이나 자질보다는 이름에 나타난 민족성으로 평가 받았던 경험, 대학을 졸업할 당시 재일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업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고 심지어 입사지원서를 한 통도 받지 못했던 경우 등, 취업차별에 대한 경험은 세대를 막론하고 매우 다양하면서도 폭넓게 퍼져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아래의 이야기는 이러한 실정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당시 70년대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한 것이 69년도였지만, 그 때는 아직까지 차별이 많아가지고, 저의 6촌뻘 되는 형님이 동경대학 법대를 나왔는데도 일반 회사에서 전혀 안 받아주고요, 우리 아버지 친구 집 빠정고에서 일을 하거나, 친척 내에서 일을 돕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교포 중에서 어느 정도 공부한 애들은 의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국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약제사 그뿐입니다. 생활이 보장되고, 차별이 비교적 적고, 수입이 괜찮은 직업 자체가...

반면, 이러한 차별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2세 이하의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일본에서 한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자각하

는 최초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적당히 망각하거나 감추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상황으로부터, 차별에 직면하여 새삼 스스로의 민족성을 자각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차별의 고리를 끊으려고 시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경우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차별'에 갑작스레 직면하게 되면서 '이제라도 한국인으로서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래의 사례는 이러한 정체성 자각의 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기 이름도 몰랐어요.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내 친구들은 내가 한국 사람인줄 한 사람도 몰랐어요. 완전 비밀로 해왔으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다 취직이 결정이 되었는데, 나만 갈 데가 없었어요. 정말 죽을 정도로 고민 했어요. 너무나 고민 했어요. 진짜 자살할까도 생각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장래의 희망을 하나도 가질 수 없게 되어서...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왔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서, 그 때 너무 심란했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한국 사람인 건 사실인데 그걸 마주 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2. 1. 2 연애 / 결혼

20-30대의 재일한인에게 있어서는 결혼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일상적 고민이었다. 이들은 주로 동포들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이들의 환경은 그것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결혼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1979년의 경우, 재일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는 비율은 54% 정도였으나, 이후 계속 증

가하여 2000년에는 8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근자에는 재일한인과 일본인이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3-4세의 재일한인이나 일본인 모두 점차 관대해지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0대 먼 담자들이 토로하는 다음의 이야기에는 젊은 세대들의 이러한 의식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일본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은 없었다. 서로 좋아하니까. 결혼에 있어 국적은 별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교포면 좋을 것 같다.

저희 오빠도 일본사람과 결혼을 했고 귀화를 했습니니다. 오빠는 제가 하라고 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모로 사는데 편하니까...

그러나 부모 세대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젊은이들과는 달리 부모 세대에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진하게 남아있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아직 제사를 모시고 있는 등 집안 대소사 문제와 관련된 실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언급되었지만,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이질감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였다. 부모 세대가 동포간의 결혼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는 동질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생활의 측면에서 훨씬 편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점과, 아무리 일본에 살고 있고 사고방식이 일본화 되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세계에서 만큼은 일본인과 재일한인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혼기를 맞은 아들을 두고 있는 한인 1세의 이야기

를 들어보자.

제가 제 아버지한테 일본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으면 집에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인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제 큰 놈이 일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제 바람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배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겠지만...

재일한인사회가 1-2세 중심에서 3-4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이전 세대들의 조국 지향적인 의식이 젊은 세대의 현지 정주의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들 사이의 결혼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한인사회 전체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일상적 고민거리임에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한인사회 차원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였다. 전반적인 동향이나 세부적인 사례에 대한 정보를 모두가 필요로 하면서도 공동의 고민으로 보다는 개인의 고민으로 남겨두는 소극적 행태만이 관찰되었다.

2. 1. 3 육아 / 교육

육아와 교육 관련 고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심에는 한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그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교육 관련 고민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민족교육문제로부터, 미시적 관점에서의 신분상승 욕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먼저, 거시적 차원의 민족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재일한인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을 정

도로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민족교육을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은 버거워 보였다. 그러다보니, 민단이나 조총련 모두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족교육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가능한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민족교육은 거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에서도 일상적 고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구체적으로, 학령기의 자녀를 둔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민족교육의 긍정적인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을 놓고 “민족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 특히, 민족교육을 시키는데 드는 비용 문제, 통학거리의 문제, 열악한 교육환경의 문제, 졸업이후의 진로 문제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예를 들어 일본학교의 경우 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고 통학 거리도 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반면, 민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약 30만엔 정도의 학비와 한 시간 정도의 통학거리를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민족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한 고충이 많았고, 이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다.⁸⁾ 면담에 참가한 한 부모의 이야기에는 그러한 갈등과 혼돈이 그대로 배어있다.

잘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수업료가 좀 비싸서 그건 부담이 된다. 중학교에 다니는 딸애는 월 2만5천에서

3만엔 정도, 둘째가 1만6천엔 정도이고, 보육료가 비싸서 3만엔 정도, 합계 7,8만엔 정도인데 좀 더 수업료를 내렸으면 한다. 본국에서 온 사람들은 엘리트(사회경제적 지위가 있는 사람)가 많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재일교포는 수업료 때문에 힘들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족교육을 고집하는 학부모들은 사회적 성취보다는 2세들이 모여서 조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인으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성취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즉, 이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인으로 태어난 이상은 민족의 역사와 존재의 근원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에 압박해서 차별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할 정도로 민족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낮은 것에 대한 반성적인 요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장대로 ‘아이들은 나처럼 키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본명을 사용하면서도 한국어를 쓸 줄도 몰랐고... 아이들만큼은 나 같이 키우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하려고 건국학교에 넣었다... 민족학교에 넣은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 내 입장에서는 애들을 민족학교에 넣은 것은 아이들에 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수업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일본학교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일본학교

8)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여지없이 남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반면, 민족학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나 교육환경의 개선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싼 교육비에도 불구하고 민족교육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비싼 학비와 낡은 교실, 교원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감내하면서 굳이 아이들에게 민족의식을 키워주며 (한)민족으로 살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갈등에 빠지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재일한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법적지위나 그런 것들에 대해 모른다. 그런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일본사회에서 재일한인이 몇몇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양질의 민족교육이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민족교육 상황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빈약하며, 일본사회에서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편견과 차별의 구조로 인해 많은 재일한인이 민족학교나 민족학급에 참가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일본인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더욱이, 취업을 할 때 민족학교에 다닌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현실에서 민족교육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한인들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이들 모두의 가슴에는 깔려 있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좀더 많이 있다면, 민족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갈 길을 좀 더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어깨동무 캠프,’ ‘안녕 친구야’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과 교육관련 정보가 좀더 많아진다면, 우리 말도 잘 배울 수 있고, 여로 모로 좋을 텐데...

2. 1. 4 건강 / 노후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납세를

근거로 한 정부의 출연금과 가입자의 각출금을 기금으로 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일본사회에서 일본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재일한인 또한 당연히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사회에서 일부 재일한인은 이로부터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한 까닭은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한인들 대부분이 건강보험이나 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고령자와 신체장애자 그리고 빈민층이라는 데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인 1-2세대에 속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육체노동에 종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미비, 건강정보의 부족, 경제적 빈곤, 그리고 병증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언어적 어려움 등은 일상적 고민이 아니라 일상적 고통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들의 고통은 면담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다수의 한인 노인들이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강력히 표출하였다.

2. 2 일상적 고민과 정보요구

그렇다면 재일한인은 일상 속에서 봉착하는 이러한 고민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고민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이나 그들이 일상적 고민에 대처해 나가는 방식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재일한인이 그들이 겪는 일상적 문제, 특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는 현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당연시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고민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질다는 점이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상생활의 고민은 주로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전형적인 사례들이 적지 않게 관찰되었는데, 재일한인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행태가 보편적이었다. 또 고민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데, 전문가와의 상담은 주로 국적문제나 여권신청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와 건강에 관련된 경우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고민이요? 글쎄요. 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달리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할 만한 대상도 없고.. 작년에 큰 아이 진학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려면 이곳 민족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은데, 경제적인 여건상 학비를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국에 유학을 보낼 형편은 더욱 안되고 여기저기 경험자들을 찾아 자문을 구하고 싶었지만 결국 포기하고 일본학교에 진학시켰어요. 한국말은 나중에 별도로 가르치기로 하구요.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직 까지도 모르겠어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일런지... 그 많은 한인단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상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라도 구하려 하면 전혀 도움이 안돼요.

중학교에 진학한 아이를 두고 있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인 L의 이야기이다. 한인 2세인 그는 조국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했던 아버지 밑에서 성장해서 민족학교를 졸업하고 오사카 지역의 대학을 마친 후 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지적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이었지만, 여러 차례 일본회사에 입사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취업에 실패한 후 결국 지금의 길을 걸어 왔다. 아버지의 엄한 교육 탓인지 L씨는 유달리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런 그가 경제적 이유로 자식을 일본학교에 보냈다고 하였다. 오랫동안 혼자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었다. 자문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의 선택에 도움을 줄만한 기관이나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L씨처럼 홀로 고민하다가 일본학교에 자식을 진학시키는 한인의 비율이 90%를 넘는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듯 일상에서 봉착하는 고민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인의 비율이 약 64%나 된다는 사실이다. 아래의 <표 2>에 나타나듯이, 418명의 설문조사 참가자 중에서 무려 267명이 이에 해당되었다. 반면, 고민의 해결을 위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단 61명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하였다.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도움을 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일본인 남자하고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 남자가 몇 달 전부터 자꾸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솔직히 너무 고민이 되요. 개인적으로 결혼에 있어 배우자의 국적

〈표 2〉 일상적 고민에 대한 대처 방식

구분	빈도	비율
노력 없음	72	17.2
스스로 해결	267	63.9
주변의 도움	61	14.6
무응답	18	4.3
합계	418	100.0

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제가 교포 3세인데 우리 또래 아이들 중에 70~80%가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하거든요.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집안의 반대지요. 특히 아버지가 아시면 팔짝 뛰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둘째는 간헐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지만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실패한 사람이 많데요. 당사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집안으로 인한 갈등이 씨앗이 되어 불화로 치닫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하데요. 너무 너무 고민스러워 평상시 잘 알고 지내던 선배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 언니 이야기가 여러 모로 위로는 되었지만 솔직히 바람직한 해결책을 주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제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정말이지 어찌 할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래들이 꽤 많을 텐데 도움을 청할만한 전문가도 없고 그렇다고 고민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을 수도 없고.”

일본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고민에 빠져있는 올해 24세가 된 한인여성의 이야기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녀가 고민을 털어놓은 상대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자가 아니라 비슷한 연배의 학교 선배였으며, 그녀의 고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한인들이 고민을 해결하고자 손을 내미는 상대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와 같은 ‘주위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이들의 고민은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이들 주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나 해결책보다는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만 무성하였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에서 우리는 재일한인사회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폐쇄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는 봉쇄되어 있고 구성원들 사이에 매트릭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취를 감춘 사회,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홀로 고민하고(기껏해야 주위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홀로 해결책을 도모해야만 하는 사회. 그러한 사회는 이미 동질성을 상실하고 해체의 길을 걷고 있는 무리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오사카 지역의 재일한인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징후의 일단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안타까움은 17%가 넘는 한인이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고민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조차 포기하고 일상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차라리 비통함으로 바뀌었다. 다음에 인용한 K씨(남성, 56세, 오사카 이쿠노구에 위치한 코리아타운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의 이야기에는 일상적 고민조차 지난한 팔자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체념의 상태로 묵묵히 살아가는 한 무리 재일한인의 피곤한 모습이 배어 있다.

“취업은 젊어서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안되는 일을 미련을 가져서 뭘 하겠어요. 당시에는 혼자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안되는 일은 생각지도 않아요.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어디서 돈을 빌릴 수나 있나. 그나마 어찌어찌해서 지금까지 먹고 산 것만도 정말 이지 다행이에요. 애들 엄마가 고생이 많았지요. 한인 이요? 민족이요? 나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애들은 일찌감치 귀화시켰어요. 나도 통명을 사용한지 오래 되었구요. 애들은 결혼해서 자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몇 년전만 해도 1년에 한 두 번은 우리를 보러 왔었는데 근래에는 소식이 뜸하네요. 사실 노후가 걱정이지요. 모아놓은 재산이 있나 그렇다고 연금혜택이 확실한가. 그래도 고민하다 말아요. 어떻게 되겠지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3. 재일한인의 일상적 정보추구

특정의 고민이나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요구를 갖게 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당면해 있는 문제(혹은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

이다. 즉,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의 결핍이나 경험의 부족을 느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소스를 찾아 나선다. 여기서 그들의 선택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구비하고 있는 정보소스의 유형과 성격이다.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만한 공식적인 정보소스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정보추구행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정보추구행태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나타난다. 즉, 문제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정보소스에 의지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직관에 의지하거나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주위 사람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에는 후자의 경향이 농후하게 드러났다. 즉, 앞서 논의하였듯이, 일상적으로 봉착하는 문제에 대해 ‘홀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행태가 그들 사이에 보편화 되어 있었다. 그들 중 극히 일부(응답자의 14.6%)만이 일상적 문제의

〈표 3〉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

구분	빈도	비율
가족친척	289	69.1
친구	78	18.7
이웃	6	1.4
직장동료	11	2.6
전문가	15	3.6
관련기관	6	1.4
무응답	13	3.1
합계	418	100.0

해결을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주위를 돌아보고 있었다. 이처럼 재일한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하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빌려 일상적 문제에 대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먼저, 재일한인이 당면한 고민 혹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주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는 평소에 어떠한 방법으로 구하여 축적(지식화)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3. 1 고민의 해결을 위한 정보원

3. 1. 1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

〈표 3〉은 재일한인이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주로 누구와 접촉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의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재일한인이 가장 선호하는 의논 대상은 가족과 친척이었다. 전체 418명의 응답자 중에서 70%에 가까운 289명이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가족이나 친척에게서 구한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친구(18.7%)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로 혈연이나 친분이 선호하는 정보원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관련 기관(1.4%)이나 전문가(3.6%)와 같은 공식적 정보원을 통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정보원에 대한 선호 경향을 조사대상자의 연령, 직업, 학력, 성, 세대별 변수에 따라 살펴보면, 정보원의 선호도에 있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난다. 먼저, 연령별로는 10대(33.3%)가 친구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데 비해 8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었다. 다음, 직업별로는 서비스직 및 기타 직종(13%)과 전문직 종사자(8.3%)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과 친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있어 여성(73.5%)이 남성(68.4%)보다 가족과 친척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높았으며,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비율은 남성(5.2%)이 여성(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대별로는 친구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후세대로 갈수록 친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⁹⁾

3. 1. 2 정보원의 유용성

그렇다면 이들 정보원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까? 유용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관찰되었다. 앞서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는 순위에 있어 가족/친척, 친구, 전문가, 직장동료, 이웃, 그리고 관련기관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유용성

9) 1세의 경우 12%, 2세 18%, 3세 23%, 그리고 4세의 경우 40%의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표 4〉 정보원에 대한 유용성 평가

구분	가족/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전문가		관련기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유용함	305	73.0	218	52.2	30	7.2	84	20.1	131	31.3	106	25.4
보통	69	16.5	135	32.3	122	29.2	144	34.4	135	32.3	156	37.3
유용않음	11	2.6	13	3.1	155	37.1	84	20.1	56	13.4	59	14.1
무응답	33	7.9	52	12.4	111	26.6	106	25.4	96	23.0	97	23.2
합계	빈도 ; 418, 비율 ; 100.0											

평가에서는 가족/친척, 친구, 전문가, 관련기관, 직장동료, 이웃의 순서를 보였다. 이처럼 전문가나 관련기관에 대한 유용성 평가가 선호도에서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와 접촉해 본 사람이나 관련기관을 방문해 본 사람의 약 25-30%가 방문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부정적 평가(14% 내외)보다 훨씬 높았다. 비용이나 접근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들 정보원의 전문성은 존중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재일한 인사회의 주요 기관의 역할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흥미롭게도 부정적 인식은 조총련 쪽보다 민단 쪽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민단이 재일한인사회의 실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한국정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변단체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관을 보면 (조)총련도 있고, 민단이 있고, 한통련이 있고, 민족교육을 하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원코리아이라는 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일본에서 생활하기에 어려우니까 이런 단체가 생기겠죠.

(조)총련쪽에서는 잘 해요.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해 주고요. 가령,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상공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십시오 등 잘 지도해요. 그러나 민단 사람들은 거의 안해요. 민단 쪽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요. 실용적인 정보의 대부분은 총련이 훨씬 나아요.

면담에 응한 사람들에 의하면, 예전에는 조총련에서 생활적인 정보나 실용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총련에 가입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조총련의 세가 많이 위축되면서 활동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한인들의 일상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팀의 관찰에 의하면 재일한 인사회에서 민단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통련이나 기타 NGO들이 오히려 한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요구들을 해결해 주고 있었다. 이처럼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부실하다 보니, 개인이 스스로 혹은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고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알 수가 없죠. 영사관에 문의하니깐 “민단에서 알아보라”고 하고, 민단에서는 “돈 좀 내라, 단비를 내라”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늘 그래요. ... 민단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경제적인 기여를 해야 하는 거죠. 기여하는 건 좋은데 민단이 재일한인의 일상생활의 상담소 역할을 원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좀 살만한 사람들의 모임은 기관이거든요. 행정서비스도 그래요. 여권 같은 것도 민단에서 발급받으면 오히려 비싸거든요. 지금은 영사관에서 직접 해주기도 하고... 그들 간부들이 한인들을 보는 시각이 “평상시에 도움도 안되면서 부탁만 하러 온다”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거리감이 있는 거죠. 고민이 생겨도 찾아가 도움을 얻으려 하기보다 아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게 되고...

3. 2 일상적 정보매체의 이용

3. 2. 1 정보매체의 유형과 선호도

그렇다면 재일한인들은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평상시에 어디로부터 얻어서 지식화 하고 있는 것일까? <표 5>는 재일한인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매

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약 37%에 이르는 사람들이 신문을 가장 중요한 매체로 여기고 있었으며, TV(23%)와 인터넷(20%)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매체로 꼽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책이나 잡지와 같은 전통적 매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디오의 비중은 매우 낮아 재일한인사회에서는 라디오가 일상적 정보매체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보매체 선호도는 연령, 직업, 학력,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특성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별 선호도에 있어서는 50대(47.4%), 60대(64.3%), 70대(56.5%)의 고령층에서는 신문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10대(42.9%), 20대(40.0%), 30대(33.3%), 40대(34.4%)의 청장년층에서는 인터넷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도 선호하는 정보매체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령, 학생층의 경우 인터넷에 대한 선호도가 61%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데 비해 TV(16.7%)나 신문(5.6%)과 같은 전통적 대중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

<표 5> 정보매체의 선호도

구분	빈도	비율
신문	154	36.8
잡지	20	4.8
책	35	8.4
라디오	7	1.7
TV	96	23.0
인터넷	84	20.1
무응답	22	5.3
합계	418	100.0

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전문직(45.8%), 자영업(54.7%), 서비스직 및 기타 직종(40.9%)은 물론이고 무직자(86.3%) 사이에서도 신문은 가장 중요한 정보매체로 여겨지고 있었다. 반면, TV는 가정주부를 포함한 무직자들 사이에서 만 가장 중요한 정보매체(약 79%)로 활용되고 있었다.

다음, 학력별 선호도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신문과 TV를 선호하는 데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졸 38.2%, 대학원졸 40%). 그리고 성별에 따른 선호도에 있어서는, 여성이 TV(30.7%)를 선호하는 반면, 남성은 신문(30.7%)을 선호하고 있었다. 한편, 세대별로는 1세와 2세가 신문과 TV를 선호하는데 비해, 3세와 4세는 인터넷과 TV와 같은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은 젊은층의 일상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그들은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거나 웹서핑을 통해서 정보를 구하는데 익숙하였고, 신문 또한 인쇄본 형태보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읽는 것을 선호하였고 한국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에도 이메일이나 채팅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젊은 층의 인터넷 선호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연구팀의 심층면담에 응했던 30대 초반의 한인 여성(S양)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참조할 수 있다. 한인 3세로 일본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3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이 미혼 여성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 애호가이었다.

“일상 정보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얻지요. 물론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TV도 가끔 보지만 정보의 탐색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인터넷이에요. 저는 특히 직업상 여행정보를 주로 취급하다보니 인터넷의 사용은 일상화 되어 있어요. 물론 근무시간에야 힘들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나 휴일 같은 때에는 인터넷 서핑을 즐기는 편이에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테마에 대해 관련 웹사이트를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 동호인 클럽에 가입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기도 하지요. 가끔 인터넷 신문에 접속하여 최신 뉴스를 읽기도 하고요. 제 또래나 젊은 층에서는 아마 보편적인 현상일 거예요.”

물론, 인터넷과 같은 첨단 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재일한인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은 아니다. 정보사회로 진입한 대부분의 선진사회에서 이미 나타났거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재일한인사회가 비록 일본 주류사회에 비해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주변사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정보화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든 일본사회의 구성체임을 고려하면 첨단 매체에 대한 그들의 선호 현상은 크게 주목할 만한 특성은 아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보면 S양의 짐작처럼 정보소스로서 인터넷에 대한 선호도가 20~30대의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세대 혹은 계층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한인사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 2. 2 정보매체의 유용성

그렇다면 이들 정보매체는 재일한인의 일상적 고민을 해결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을까? 이번에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특정 고민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이들 매체가 정보소스로서 어느 정도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각각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6>에 나타나듯이, 선호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신문(54.5%)과 TV(50.7%)는 정보소스로서의 유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책의 경우 선호도에서는 뒤지지만 선호자들 사이에서 정보소스로서의 유용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47%).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의 경우 더욱 분명하여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57%가 정보소스로서 인터넷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정보매체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연령별 차이는 두드러져, 인터넷의 경우 10대(87.5%)에서 40대(70.9%)에 이르는 젊은 층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반면, 신문과 TV는 50대부터 70대까지의 고령층에서 보다 유용한 매체로 인식되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유용성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무직자 사이에서는 TV에 대한 유용성 평가가 가장 높았다. 세대별 반응에 있어서는 선

후도와 마찬가지로 1세와 2세들이 TV와 신문의 유용성에 높은 점수를 준제 비해 3세와 4세들은 인터넷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2. 3 정보매체의 주체와 언어

재일한인의 정보매체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하여 정보매체의 유형 못지않게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이들 매체의 운영 주체와 사용 언어였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전반적인 경향과 특성의 파악을 위해 앞서 인용한 인터넷 애호가인 S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자.

“주로 찾는 웹사이트요? 아무래도 일본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대부분이에요. 운영주체는 물론 일본기 관이나 단체이고요. 물론 저는 한국에 유학도 다녀와 서 한국말이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그래도 일본어가 훨씬 더 편해요. 아마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세대에 서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려서 민족학교를 다녔으면 모를까? 이곳에는 한 국어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는 거의 없어요. 한인 기관 이나 단체에서 만든 홈페이지 중에서 한국어와 일본 어로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몇몇 있긴 하지만... 그런 데 우리가 일본 사이트를 주로 찾는 까닭은 단지 언어

〈표 6〉 정보매체의 유용성

[illegible]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내용이
지요.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대부
분은 일본 사이트에 있거든요. 시스템의 기능이나 인
터페이스도 한인 사이트는 매우 조잡하구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일본 사이트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S양의 이야기처럼,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제일한인이 즐겨 찾는 인터넷의 정보소스는 주류사회인 일본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작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매체에 대한 이러한 선호는 비단 첨단 정보기술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면담에 응했던 40대 후반의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남성, 한인 2세) 역시 일상에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한인 매체가 아닌 일본 매체를 통해 얻고 있었다.

“저는 신문을 통해 일상적 정보는 많이 얻어요. 주로 아사히나 요미우리 신문을 봐요. TV 뉴스는 NHK를 주로 보고요. 한국신문이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한 때 업무상 필요해서 한국신문을 구독할까 했는데 이곳에는 지사조차 없어 배달도 늦고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XX신문이나 00일보 같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 신문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내용도 별로이고, 한인사회에 대한 소식이나 알이불까

하고 뒤적이면 막상 한인사회에 대한 뉴스보다는 한국의 주요 신문기사를 일정 기간 모으다가 요약해서 제공하는 수준이에요. ...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한인 매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요...”

그의 말처럼 일본 매체에 대한 선호는 세대나 연령 혹은 직업에 관계없이 재일한인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재일한인은 한인(혹은 한국어) 매체를 선호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한인들은 “일본에서 살아가려면 일본 매체에 의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80%가 넘는 재일한인이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꿈꾸는 삶의 목표가 “일본인과 대등한 대우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는 것”인데,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생존’ 정보의 대부분이 일본 매체로부터 제공되고 있는데, 어찌 그들이 일본 매체를 멀리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웹사이트는 고사하고 변변한 지역 정보매체 하나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재일한인사회의 실상을 고려하면 그들의 정보행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재일한인이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표 7>은 재일한인이 정보를 찾거나 도움을 구하고

〈표 7〉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성격

[illegible]

자 할 때 주류사회인 일본사회 정보원과 한인 사회 정보원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언어, 사람, 기관, 매체의 측면에서 각각 비교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재일한인은 일본어로 된 일본 주류사회에서 생산한 매체와 일본 주류사회의 기관을 선호하지만, 사람은 일본인보다는 같은 한인을 보다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어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418명 중 50명인 12.0%에 불과하였다. 기관에 대한 선호도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일본 주류사회의 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정보를 구할 때 한인기관과 일본기관 중 어느 기관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재일한인의 55.1%가 일본기관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매체에 대한 선호도 면에서도 일본 주류사회에서 생산된 매체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73.2%인데 비해 한인사회에서 생산된 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16.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선호도면에서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인에 대한 선호도가 일본인에

비해 다소 높았는데, 한국인을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은 49.8%인데 비해 일본인을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은 39.5%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성격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져 학력이 높을수록 일본어와 일본매체 그리고 일본 기관과 일본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도 '사람'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한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2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일본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한인매체에 대한 선호도는 1세(71.1%), 초등학교 졸(75%), 80대(100%) 그룹처럼 초기에 이주한 학력이 낮은 고령층에서 전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2. 4 정보소스의 선택 기준

그렇다면 재일한인이 정보를 찾거나 도움을 구할 때 일본기관이나 매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언어소통의 용이함' (42%)에 있었다. 80% 이상의 재일한인이 일본어를 모국어

〈표 8〉 일본 기관이나 매체를 선호하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접근이 편리	114	27.3
언어소통의 용이	175	41.9
정보량	52	12.4
정보신뢰	24	5.7
사생활보장	16	3.8
경제성	4	1.0
무응답	33	7.9
합계	418	100.0

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만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비록 순위는 뒤졌지만 '접근의 편리성'(27.3%)은 기관이나 매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었다. 또한 제공받는 정보의 양과 질 또한 이들 기관이나 매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일한인 사이에서 일본기관이나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듯 크다고 하더라도 한인기관이나 이들이 생산해 내는 지역 정보매체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계층(가령, 사업이나 그 밖의 이유로 한국이나 북한과의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본사회로부터의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 특히, 민족적 정체성이 남달리 강한 사람들이나 한인사회 내부에서조차 소외당하고 있는 빈곤층이나 노인층)에게는 비록 품질이 열악하더라도 한인기관이나 단체가 생산해 내는 정보매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민단본부에서 발행하는 《민단신보》나 KMJ에서 발행하는 《SAI》와 같은 기관지나 잡지 혹은 회보¹⁰⁾ 등은 비록 발행량은 적지만 꾸준히 발간되어 유통되면서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통일신문》이나 《Korean News(齊民日報의 일본어 요약판)》 같은 지역 신문들은 발행부수만 몇 만을 헤아릴 정도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이들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도, 비록 그 내용과 기능에 대한

불만은 있더라도, 재일한인이 일상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소스로서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흥미롭게도 한인사회의 주요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러한 기관에 대한 방문조차 꺼리는 사람들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일상적 고민(주로 일본사회와의 마찰로부터 비롯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소스로서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들의 관심은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에 나열해 놓은 홍보성 기사가 아니라 '다양한 고민'을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해 놓은 가상공간 속의 '의사소통의 장'에 쏠려 있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들만의 가상공간에서 '재일한인이기에 겪어야 하는 일상적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러한 고민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로 말이다.

그렇다면 이들 한인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이들이 생산해 내는 정보매체와 운용하는 홈페이지의 유용성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가한 이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9>에 나타나듯이, 한인기관이나 단체는 한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 '약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응답자 중 62%가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도 21.1%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83.1%의 응답자들이 한인기관이나 단체가 한인들에게 많은 적든 도움

10) 이외에, 재일한국청년회의 《안녕》, 한통련의 《민족시보》, 재일한국민주여성회의 《보랏빛》, 민족교육문화센터의 《한길》 등이 있다.

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인사회의 각종 단체나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한 한인들이 관심사나 당면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자 할 때는 전반적으로 '약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50%가 '약간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한 사람은 14.8%에 이르렀다. 이처럼 응답자의 65%가 한인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정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인사회에서 생산되는 매체 즉 방송, 신문,

잡지 등은 한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데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60.8%가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20.3%에 이르렀다. 이처럼 80%가 넘는 응답자가 한인매체가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표 11 참조).

한편, 이들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이들의 홈페이지와 이들이 생산해 내는 매체의 유용성에 대해 소집단별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는 않았으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

〈표 9〉 한인기관이나 단체의 유용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도움	88	21.1
약간 도움	259	62.0
도움 안 됨	56	13.4
무응답	15	3.6
합계	418	100.0

〈표 10〉 한인기관(단체)의 홈페이지 유용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도움	62	14.8
약간 도움	209	50.0
도움 안 됨	93	22.2
무응답	54	12.9
합계	418	100.0

〈표 11〉 한인사회가 생산하는 매체의 유용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도움	85	20.3
약간 도움	254	60.8
도움 안 됨	58	13.9
무응답	21	5.0
합계	418	100.0

다. 먼저, 한인기관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세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자영업자에게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한인매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변수에 따른 소집단별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3. 2. 5 정보매체로서의 공공도서관

마지막으로, 평소 필요로 하는 자료(책이나 잡지 등)를 어떠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의 <표 12>에 나타나듯이, 2/3가 넘는 한인들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서점 등을 통해 직접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관과 같은 공공 성격의 공식적 정보유통기관을 활용하는 사례는 10.8%에 불과할 정도로 빈약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 직업, 학력, 성별, 혹은 세대에 관계없이 재일한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이들은 오히려 도서관

에 가서 책을 찾아보라는 식의 능동적 정보탐색을 기대하는 데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오히려 정보가 책에 있든, 도서관에 있든 그러한 정보를 찾아내어서 바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직접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자연스럽게 한인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 한인들이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회수는 전체 418명 중에서 약 2/3이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인들의 방문 빈도는 월 평균 1.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인구 5만명 당 1개관인 총 3,000 개관 정도의 시(市), 구(區), 정(町), 촌(村)립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고, 수도권 도쿄의 경우 반경 700m 지역마다 1개꼴인 총 400개의 공공도서관의 설치되어 있어, 국민 1인이 년평균 약 2.8권의 도서를 대출¹¹⁾ 하는 일본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일한인사회에서 지식정보의 유통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필요한 자료의 입수방법

구분	빈도	비율
구입	287	68.7
대여점	5	1.2
주변	39	9.3
도서관	45	10.8
기타	14	3.3
무응답	28	6.7
전체	418	100.0

11) 일본공공도서관집계. (<http://www.jla.or.jp/2003pub.html>)

4. 결 론

재일한인의 정보행태를 그들이 봉착하는 일상적 고민의 유형과 대처방식, 그 가운데 표출되는 정보요구와 추구행태를 통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팀의 지적 호기심을 가장 크게 자극한 부분은 설문 및 면담참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정보화' 수준이었다. 이 논문에서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 설문참가자의 약 68%가 평균 또는 평균이상이라고 대답하였다. 물론 설문참가자의 약 80%가 한인사회 전체의 정보화 수준이 일본 주류사회에 비해 "낮거나(43%) 비슷하다(39%)"는 반응을 보여 한인사회의 전체적인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았지만, 자신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는 이처럼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논의하였던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성과 관련하여 몇몇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져 준다.

이 논문의 초반부에서 우리는 재일한인의 정보에 대한 욕구나 필요한 정보에 대한 탐색의지가 그다지 적극적이지도 능동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그들은 일상에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면서도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나 주변의 조언에 주로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는 단지 1/3만이 스스로 '낮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정보행태는 소극적인데 다수가 자신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정보와 정보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주류사회로부터의 차별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 정도 수준이면 만족할 만하다고 자평하는 것일까? '정보화'와 관련한 그들의 실제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조사결과를 놓고 본 연구팀의 갈등과 의문은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과 정보빈곤 현상'에 대한 후속 연구에의 필요로 이어지고 있다. 즉, 소수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거하여 (1)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활동과 정보환경을 조사하고, (2) 재일한인사회가 구비하고 있는 정보인프라가 구성원들의 일상적 정보요구에 대처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3) 재일한인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보빈곤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4) 재일한인사회와 주류 일본사회 사이의 정보격차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며, 이를 통하여 (5) 재일한인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보빈곤 현상을 재일한인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보행태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재일한인사회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요구와 정보행태에 대한 논의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 못지않게 '그러한 현상을 유발하게 만든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뒤따를 때 비로소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특성을 밝혀내는 작업

과 이러한 정보행태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는 작업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향후 그러하듯이, 문제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이는 효과적인 대처방안의 마련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그리고 후속 작업을 통하여, 이렇게

정보를 매개로한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양상이 모두 드러날 때 비로소 '재일한인' 집단의 정보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하며, 정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의 의미를 이를 위한 기초를 놓는데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재언, 김동훈 공저; 하우봉·홍성덕 공역. 2000. 『재일 한국·조선인: 역사와 전망』. 소하.
- 권숙인. 2002. 월경(越境)하는 정체성: 재일한인, 민족, 그리고 '우리'. 『民族發展研究』, 7: 111-129.
- 김광민. 1994. 재일한국인의 법적 차별문제. 『殉國』, 47: 40-47.
- 김문조, 김종길. 2002.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36(4): 123-155.
- 金達壽. 1993. 『朝鮮: 民族·歷史·文化』. 岩波書店.
- 金正根, 園田恭一, 辛基秀 共編. 1995. 『52 在日韓國·朝鮮人の健康·生活·意識: 人口集團の生態と動態をめぐって』. 明石書店.
- 文京洙. 1998. 재일 한국인 문제의 기원. 『제주대東아시아研究論叢』, 9: 179-198.
- 閔寬植 著;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金敬得, 金容權 共譯. 1994. 『在日韓國人の現狀と未來』. 白帝社.
- 박병윤. 1999. 재일동포사회의 미래상과 당면과제. 『僑胞政策資料』, 58: 99-130.
- 福岡安則, 金明秀 共著. 1997. 『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 東京大學出版會.
- 이규배. 1998. 在日同胞 사회의 형성과 전망. 『韓民族共榮體』, 6: 17-46.
- 이범렬. 1990. 在日韓國人の法的地位에 관한諸問題. 『人權과正義』, 165: 34-41.
- 이종구, 장화경. 2000. 재일동포의 사회운동과 아이덴티티: 이쿠노(生野)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논총』, 14: 73-112.
- 이제환. 1999. 수요자 중심의 '정보요구' 분석을 위한 실험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2): 93-121.
- _____. 2002. 20세기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연구 현황과 특성 분석: 정치, 경제 분야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2): 47-78.
- _____. 2004. 지역간 정보격차의 실태와 개선방안. 『윤구호박사정년기념논문집』. 대

- 구: 윤구호박사정년기념논문집발간위원회. 427-446.
- _____. 2004. 정보행태를 통해 본 재일한인의 삶. 〈역사, 정보, 언어의 관점에서 본 한일관계 -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년도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4. 5.28. 부산 대학교 대회의실). 29-42.
- 이제환, 정수원, 송정숙. 2004. 일상적 고민을 통해 본 재일한인의 삶. 『한국민족문화』, 23: 149-186.
-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73-296.
- 이춘길. 1998. 『재일동포의 문화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在日本大韓民國民團在日韓國人意識調査委員會 編. 2001. 『在日韓國人意識調査中間報告書 2000』. 在日本大韓民國民團.
- 정인섭. 1996.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서울: 대학교출판부.
- 정진성. 1999. 재일동포 사회의 당면과제와 미래상. 『僑胞政策資料』, 58: 131-145.
- 仲尾宏. 1997. 『在日韓國・朝鮮人問題の基礎知識』. 明石書店.
- 崔炳郁. 2001. 『「恨」の海峽を越えて: ハミョンテンダの信念で半世紀°在日韓國人'こころの叫び』. 現代書林.
- 최정태, 이제환, 노지현. 2002. 20세기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 분석. 『한국문화정보학회지』, 36(2): 139-164.
- 한경구. 2001. 일본 속의 한국인. 『韓國史市民講座』, 28: 109-129.
- 한일민족문제학회 편. 2003. 『재일 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
- 황종성 외. 2000.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정보화저널』, 7(1): 9-31.
- Agada, J. 1999. "Inner-City Gatekeepers: An Exploratory Survey of Their Information Use Environmen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1): 74-85.
- Bates, M. J. 1996. Learning about Your Users' Information Needs: A Key to Effective Service. Paper presented at the PIALA '95: Preservation of Culture Through Archives & Libraries, Colonia, Yap,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 Bruner, J. S.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ckland. M. K. 1991.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New York: Greenwood Press.
- Case, Donald O. 2002.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Chatman, E. A. 1991. "Life in a Small World: Applicability of Gratification Theory to Information Seeking

-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 438-49.
- Dervin, Brenda & Nilan, M. (1986). "Information Needs and Use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1: 3-33.
- Dervin, Brenda. 1992. "From the Mind's Eye of the User: The Sense-Making Qualitative-Quantitative Methodology". In J. Glazier & R. Powell eds.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Management*.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61-84.
- Kuhlthau, C. 1993. Seeking Meaning: A Process Approach to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Norwood, NJ.: ABLEX.
- Metoyer-Duran, Cheryl 1993. "Information Gatekeeper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8: 111-150.
- Pendleton, Victoria E. M. & Elfreda Chatman 1998. "Small World Lives: Implications for Public Library". *Library Trends*, 46: 732-52.
- Savolainen, Reijo 199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 259-94.